

‘미래를 꿈꾸는 토요일이터’ 수강생 모집
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, 14~24일 선착순 신청

청소년 대상 한국사·항공드론 등 총 10개 강좌
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‘미래를 꿈꾸는 토요일이터’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.

‘미래를 꿈꾸는 토요일이터’는 ▲올바른 한국사 ▲생활 속 과학실험교실 ▲키 쑥쑥! 웨이브댄스교실 ▲항공드론 ▲창의력 쑥쑥 보드게임 등 10개 강좌로 구성됐다.

각 강좌는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2회가 진행된다.

수강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이며, 학생 본인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.
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김용일 관



장은 “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손난 학생들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개개인의 잠재된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(<https://lib.gen.go.kr/gecs/>)을 참조하거나 운영과 (062-380-8853~5)로 문의하면 된다.

/임창균 기자

뉴스[3. 7.(화) 16:08] [교육소식]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'청소년 강좌' 수강생 모집 등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14일부터 24일까지 '2023년도 상반기 청소년강좌'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. 다음달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청소년 강좌는 '올바른 한국사' '생활 속 과학실험교실' '키 쑥쑥! 웨이브댄스교실' '항공드론' '창의력 쑥쑥 보드게임' 등 10개 강좌로 구성됐다. 각 강좌는 매주 토요일 총 12회가 진행된다. 수강 신청 등 제사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